

▶ 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

1. 독서는 나의 힘

-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37문제)-----1쪽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30문제)-----16쪽

2. 문학의 갈래

- (1) 비 (51문제) -----37쪽
(2) 삼포 가는 길 (47문제)-----53쪽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문제)-----79쪽
(4) 보지 못한 폭포 (32문제)-----103쪽

3. 국어와 우리 생활

- (1) 음운의 변동 (66문제)-----119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 (69문제)-----139쪽
(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31문제)-----161쪽

4. 소통하는 말과 글

- (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32문제)-----175쪽

◆빠른 전체 정답 -----195쪽

◆해설 -----1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비” 문체 정리

제재 소개

- 비 내리는 모습을 절제된 감정과 정제된 시어를 통해 한 쪽의 산수화처럼 그려 낸 시
-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후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짧고 절제된 감각으로 묘사됨.
- 간결한 시행 속에서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잘 보여 줌.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묘사적, 감각적, 비유적
주제	비 내리는 날의 풍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함. • 간결한 시행과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짐. •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남.

비가 내리는 과정

내리기 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함.
빗방울	새의 꼬리와 걸음걸이처럼 튀어 오름.
가는 빗줄기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흐름.
굵은 빗줄기	붉은 잎을 소란히 밟으며 다시 떨어짐.

작품의 정서나 분위기

-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된 감정
- 생동감 있는 감각적 표현
-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흐르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 선명히 표현함.
- 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묘사하여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줌.

‘비’에 대한 표현과 시상의 전개 방식

‘비’		
꼬리, 산새 걸음걸이 →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수척한 흰 물살, 손가 락 → 비가 가 는 줄기를 이루어 흐 림.	붉은 잎 을 소란 히 밟고 감. → 빗줄 기가 굵 어짐.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 오는 모습의 변화 양상을 전개함.

활용적 표현

- 비 내리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 걸음걸이에 비유함.
- 빗물이 이룬 물줄기를 ‘수척한’, ‘손가락’으로 표현함.
- 비가 ‘잎’에 내리는 모습을 ‘밟고 간다’고 표현함.

[참고] 활용법이란?

- 감정이 없는 대상, 즉 무정물을 감정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기법
-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므로 대상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

3, 4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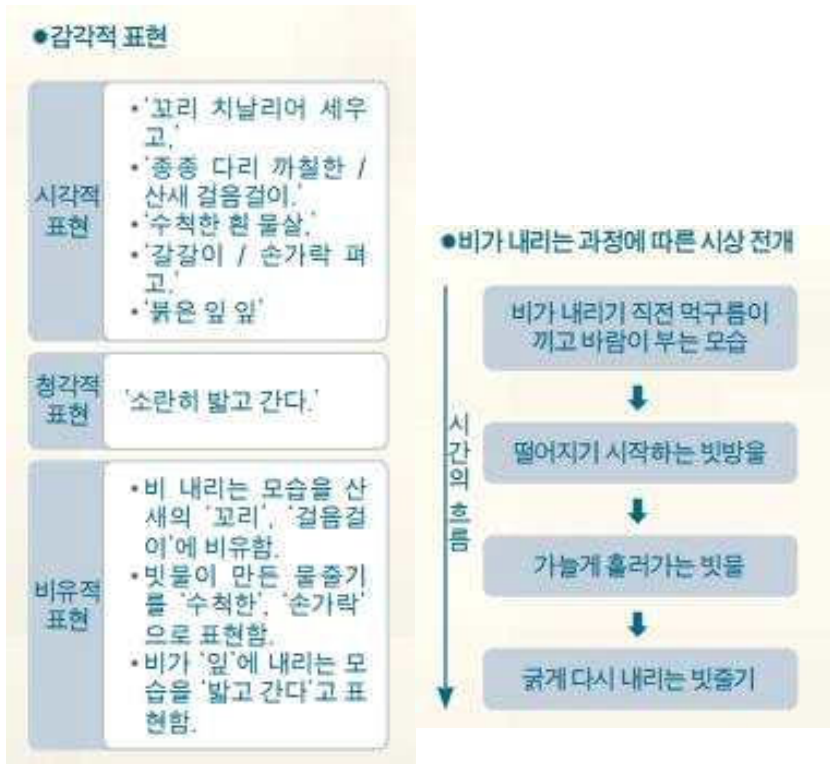
“앞섰거나 하여/꼬리 치날리어 세우고,”와 “종종 다리 까칠한/산새 걸음걸이”를 ‘비 내리는 모습’으로 보는 관점과 ‘산새의 모습으로 보는 관점’이 있음.

① ‘비 내리는 모습’으로 보는 관점

앞섰거나 하여/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빗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습을 산새의 꼬리에 비유함.
종종 다리 까칠한/산새 걸음걸이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산새의 걸음걸이에 비유함.

② ‘산새의 모습’으로 보는 관점

앞섰거나 하여/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비를 피해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
종종 다리 까칠한/산새 걸음걸이	종종거리며 바쁘게 비를 피해 가는 산새의 모습



돌에

그늘이 차고,

비 오기 전 먹구름이 끼고 어두워짐.

따로 물리는

바람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짐.

소소리 바람.

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차고
매서운 바람

▶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

앞섰거니 하여

① 빗방울이 앞다투어 떨어지는 모습
② 비를 피해 앞다투어 도망하는 산새의 모습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① 빗방울이 떨어지며 휘어 오르는 모습을 시각화함.
(빗방울을 '새의 꼬리'에 비유함.) 활유법
② 꼬리를 치켜세우고 바쁘게 가는 새의 모습을 시각화함.

종종 다리 까칠한

야위거나 매말라 살갓이나 털이 윤기가 없고 조금 거친

산새 걸음걸이.

① 빗방울이 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화함. 활유법
② 빗방울을 휘가며 바쁘게 가는 산새의 걸음을 시각화함.

▶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감이나 바다의 바닥이 갈거나 푹아 줌아
물살이 세계 흐르는 곳

여울지어

여울을 이루어
물이 몹시 야위고 마른 듯한

주척한 흰 물살,

물줄기가 가늘게 흐르는
모습 비유. 의인화

「갈갈이」

갈래갈래 「」: 물줄기가 가늘게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의인화함.

손가락 펴고,

▶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흐르는 모습

「뗏은 듯」

「」: 그치는 듯하다
다시 내리는 비
빗방울 「」: 그치는 듯하다
다시 내리는 비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붉은 잎 잎

반복을 통해 잎사귀마다 떨어지는 빗줄기 표현

소란히 밟고 간다.

곱어진 빗줄기의 모습.
청각적, 시각적, 활유적 표현

▶ 빗방울이 나뭇잎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

“비”의 묘사 방법

1.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을 적어 보자.

돌, 그늘, 산새, 빗방울, 빗줄기, 물살, 붉은 잎

2.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2연	돌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바람이 부는 모습
3~4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5~6연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
7~8연	멧은 듯하다가 다시 소란스럽게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

2. 이 작품에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해 보자.

이 작품은 비가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비가 오기 직전부터 빗물이 물줄기를 이루고, 멧은 듯하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감각적인 언어와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3. 이 작품의 내용을 산문으로 바꿔 쓴다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이 작품은 비교적 짧은 시행을 규칙적으로 2행씩 배열하여 연 구분을 하고 있어 리듬감이 느껴지고, 간결한 시행에서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그런데 산문으로 바꿔 쓴 글은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줄글로 풀어 써 있어 이 작품에 비해 리듬감을 거의 느낄 수 없고 여백의 미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4. 이 작품에서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시구들을 골라 그림으로 그려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해 보자.

<p>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p> 	<p>갈갈이 손가락 펴고.</p> 	<p>● 때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p> 
<p>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튀어 오르는 모습을 산새의 구체적인 동작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p>	<p>빗줄기가 물살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손가락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p>	<p>시각적·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였고, 빗방울을 살아 있는 생물에 빗대어 참신하게 표현하였다.</p>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멋은 듯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소소리 바람: 이른 봄의 맵고 스산한 바람.

-정지용, <비>

대건고등학교 (대구)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② 대조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의 순환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건고등학교 (대구)

2. 이 시를 <보기>와 같이 바꾸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돌에 그늘이 생기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포리를 치켜 올린 새들이 종종걸음을 걷는 것처럼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툭툭 튀더니, 이내 물살은 여울을 이루어 몇 가닥으로 흘러 내려간다. 그러다 잠시 멎은 듯했던 빗줄기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붉은 나뭇잎에 빗방울이 소란스럽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 ① 위 시와 달리 [보기]에는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② 위 시와 달리 [보기]는 여백의 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위 시와 [보기]는 모두 묘사하는 대상이 표현에 나타난다.
- ④ 위 시는 [보기]와 달리 대상에 대한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 ⑤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건고등학교 (대구)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을 유추한다면, '붉은 잎 잎'은 '꽃잎'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실제 바라보았던 대상이 '빗방울'이라면, ㉡의 원관념은 '산새'다.
- ③ ㉢은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화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은 물줄기가 가늘게 흐르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비가 멈추는 듯하다 다시 내리며 거세진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건고등학교 (대구)

4. 이 시를 영상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2연: 빠르고 밝은 느낌의 배경 음악으로 먹구름이 끼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② 1-2연: 돌에 서늘한 기운이 덮치고 한겨울 추위를 몰아오는 바람이 부는 장면으로 시작해야겠어.
- ③ 3-4연: 산새의 발자국을 연상하도록 튀어 오르는 빗방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줘야겠어.
- ④ 5-6연: 여러 갈래로 흐르는 빗물에 시적 화자가 천진난만하게 손가락을 펼쳐 담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야겠어.
- ⑤ 7-8연: 빗소리를 듣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소나기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어야겠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멧은 듯
새삼 듣는 빗날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정지용, <비>

대연고등학교 (부산)

5.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한 것의 종류가 다른 하나가 포함된 부분은?

<보기>

*언어로 표현된 사물의 감각적 영상을 가리킨다.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상의 상태, 모양, 움직임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며,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 ① 1연 ② 3연 ③ 4연 ④ 6연 ⑤ 8연

대연고등학교 (부산)

6. 위 시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 ① 비 내리는 풍경을 인과적 흐름에 따라 묘사함.
② 간결한 시행과 복합적인 묘사가 두드러짐.
③ 화자의 감정이 제대로 분출되어 있다.
④ 감각적인 언어의 비유를 통해 대상을 묘사함.
⑤ 시적 화자가 전면에서 나서서 내용을 설명함.

대연고등학교 (부산)

7. 위 시의 4연의 대상이 실재하느냐에 따른 2가지 해석을 쓰시오.

- 1)
2)

범서고등학교 (울산)

8. 위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압축적이고 절제된 언어 표현으로 여백의미를 자아내고 있다.
② 짧은 시행을 2행씩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리듬감을 드러낸다.
③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범서고등학교 (울산)

9. 위 작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비 내리는 정경을 바라보고 있다.
② 1~2연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 5~6연에서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7~8연에서 멧은 듯하다가 다시 소란스럽게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⑤ 비 내리는 정경을 바라보는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삼포 가는 길” 필독 정리

「삼포 가는 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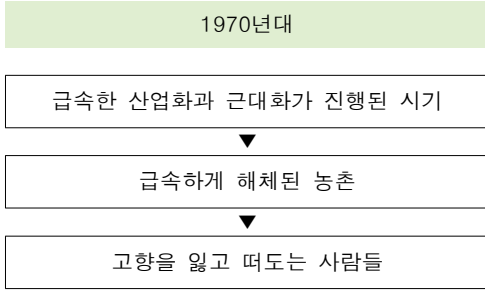
발단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사판을 떠난 영달은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절정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를 거절하고, 백화는 홀로 떠남.
전개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 씨는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고, 이들 셋은 동행하게 됨.	결말	한 노인에게서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된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고 주저함.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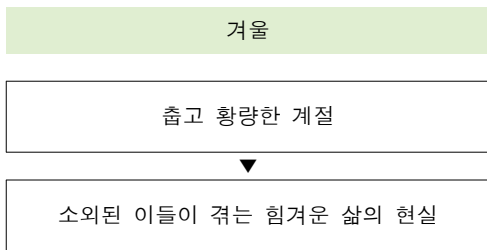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1970년대 겨울 공간적: 시골길과 감천역
주제	뜨내기 인생의 애환과 연대 의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전달함. 19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남.

「삼포 가는 길」의 시간적 배경

① 시대



② 계절



장소의 이동에 따른 줄거리

들판	떠돌이 노동자 영달과 출옥 후 귀향하고 있는 정 씨가 만남.
↓	
국밥집	정 씨와 영달은 백화를 잡아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	
소나무 숲	정 씨와 영달이 백화를 만나고, 세 사람이 동행함.
↓	
초가	세 사람이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눔.
↓	
감천으로 가는 길	눈길에 발이 뻘 백화를 영달이 업고 길을 감.
↓	
감천역 대합실	정 씨와 영달이 노인에게서 변해 버린 삼포의 소식을 들음.

제재 소개

- 1970년대를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황량한 삶을 그린 소설
- 고달픈 인생을 대변하는 정 씨와 영달, 백화 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남.

「삼포 가는 길」의 등장인물

영달	뜨내기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아 떠돌음.
정 씨	교도소에서 나와 공장 노동을 하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음.
백화	술집 작부로 살다 도망쳐 나와 고향을 찾아가고 있음.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며 뜨내기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처지

등장인물들의 유대감

영달	발을 뺀 백화를 업어 줌.
정 씨	영달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하고 정착해 지내기를 바람.
백화	영달에게 자기 몫의 시루떡에서 절반을 떼어 줌.

뜨내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느낌.

본명을 밝히는 백화의 행동에 숨은 의미

백화	술집 작부로서의 이름 → 본질을 감춤.
이점례	평범하게 살던 시절의 이름 → 본질을 드러냄.

영달과 정 씨에게 자기 본명을 밝힘.

-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임.
-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유대감을 느낌.

‘삼포’의 변화에 담긴 의미

과거	현재
바다, 고기잡이하고 감자 매는 곳 → 정 씨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의 정처	육지, 트럭이 다니고 공사하는 곳 → 변해 버려 더 이상 정 씨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는 곳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마지막 안식처까지 잃고 헤매게 되는 사회 하층민의 고단한 삶

● ‘노인’의 말



● 영달과 정 씨의 심리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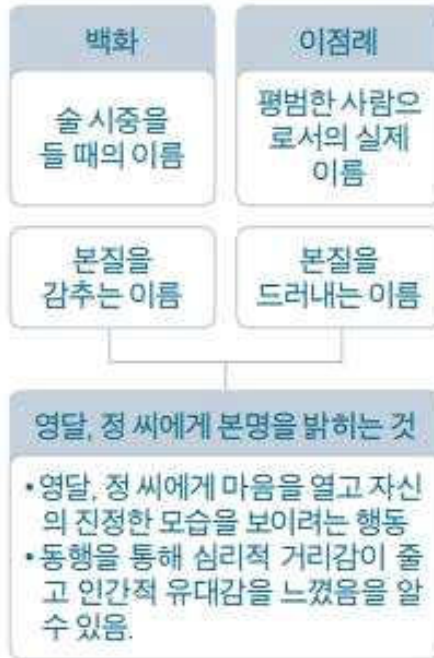
● 정 씨와 영달이 쉬었다 가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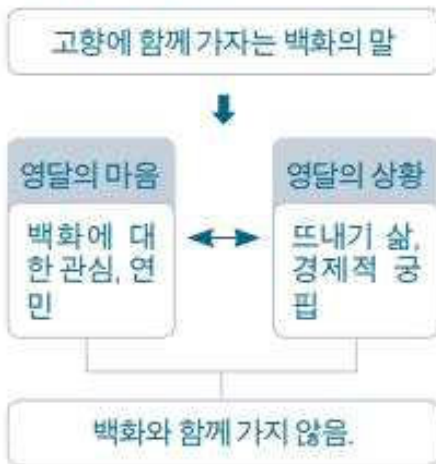
● '삼포'의 변화



● 백화가 본명을 밝히는 것의 의미



● 영달의 내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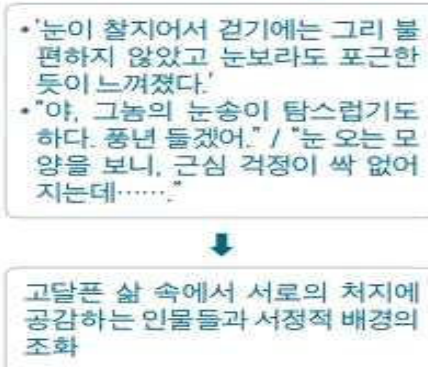
● 인물들이 보이는 인간적 유대감



● 고향에서 백화의 삶



● 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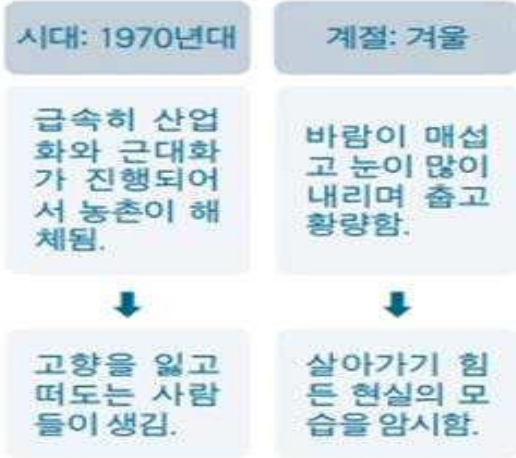


●「삼포가는길」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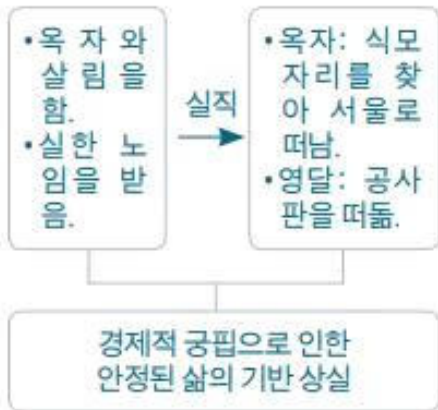
영달	정씨	백화
일 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 (공사장 인부)임.	교도소에서와 고향(삼포)으로 가는 중임.	술 시중을 들다 망쳐 고향으로 가는 중임.

↓
뜨내기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

●「삼포가는길」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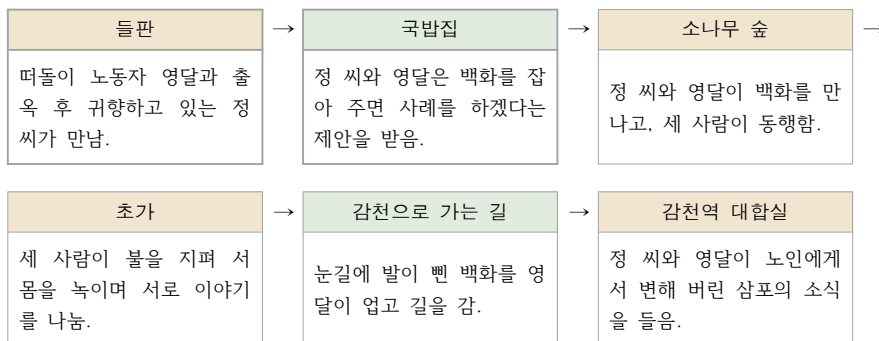


●영달의 이야기



“삼포 가는 길” 드라마의 줄거리

1. 이 작품의 줄거리를 장소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 보자.



2-(2) 삼포 가는 길 [이론편]

2.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처지를 정리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파악해 보자.

정 씨	영달	백화
교도소에서 나온 후 고향 삼포로 가고 있음.	공사판을 찾아 돌아다니는 뜨내기 노동자임.	술 시중을 들다 도망쳐 나와 고향으로 가고 있음.
등장인물들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도는 뜨내기 삶을 살아가고 있음. • 고단한 처지의 인생들임. 		

3. 등장인물들이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자.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길 위에서의 동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을 나누게 된다. 즉, 이 작품에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인물들이 서로 동질감이나 유대감, 연대 의식 등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 영달이 고향에 같이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

- 안정된 직업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달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경제적 능력 이 없어 백화와 정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서울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난 옥자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거절했을 것이다.

5. '삼포'라는 공간의 의미가 개발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고, 정 씨가 안고 있는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자.

개발 전	삼포	개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감자를 매며 살아감. 나룻배가 있음. • 정착하고 싶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둑을 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드나드는 공사판이 됨. 신작로가 생김. •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든 낯선 곳으로, 정착하고 싶지 않은 공간임.
<p>• 갈등의 원인: 개발의 흔적만 무성한 삼포는 정 씨에게 더 이상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화, 산업화는 많은 이들에게 고향을 상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허를 가져왔는데, 정 씨 또한 그러한 상실의 공간 앞에서 정처를 잃고 갈등하는 것이다.</p>		

6. 이 작품의 시점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보았다. 각 시점의 효과를 생각해 보고 차이점을 말해 보자.

<보기>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머뭇거리고 있는 나 대신 정 씨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무슨 영문인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내 눈시울도 뜨거워져서 백화를, 아니 점례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심리나 행동 등을 꿰뚫어 보면서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으며 직접 말하는 느낌이 들어 친근하게 다가온다.

“삼포 가는 길” 영달의 영혼

1. 정 씨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자.

‘고해’가 ‘고통의 세계’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정 씨의 말은 감옥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떠돌이로 전락한 사람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2. 영달이 비상금으로 산 물건들이 뜻하는 바를 말해 보자.

영달이 비상금으로 산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은 백화를 향한 영달의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짝빽해졌다. 한 스무 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①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찔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 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 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작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중략 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썰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락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헛,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들었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A]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애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

범서고등학교 (울산)

1.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을 통해 변해버린 삼포를 언급함으로써 산업화로 황폐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시간이 지날수록 세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
- ③ 백화는 자신의 본명을 밝힘으로써 정씨와 영달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세 인물은 뜨내기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⑤ 정씨와 영달은 서로 같은 이유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범서고등학교 (울산)

2. 아래의 밑줄 친 ‘눈’의 상징적 의미가 ㉠에서 암시하고 있는 ‘함박눈’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서 길을 열었다. //
지금 눈 내리고 / 매화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 ② 山村(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柴扉(시비)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등만 一片明月(일편명월)이 귀 벗인가 흐노라
-신흥, ‘산촌에~’
- ③ 이제 바라보노라. /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 눈 내리는 풍경. /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 보이지 않는 움직임. /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 내리는 눈 사이로 /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 안에서는 어둠이 노라. /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 쌓이는 눈더미 앞에 /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고은, ‘눈길’

- ④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리 좁든 매화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 흐인들 봄 뜻이야 아슬소냐.
-안민영, ‘매화사’
- ⑤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굶다툰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원천석, ‘눈 마자~’

보인고등학교 (서울)

3. 밑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치관의 갈등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반전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보인고등학교 (서울)

4. 밑글을 읽고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포’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인터넷에서 실제 지명을 찾아보았어.
- ② 백화가 고향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을지 궁금해서 친구와 토론을 해 보았어.
- ③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서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사해 보았어.
- ④ 자신의 고향인 삼포가 변해 버린 것을 알게 된 영달이의 상실감을 떠올리면서 시를 창작해 보았어.
- ⑤ 영달이와 정 씨는 마지막에 기차를 타고 삼포에 도착했을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결말방식이 갖는 효과를 생각해 보았어.

보인고등학교 (서울)

5. [A]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상전벽해(桑田碧海) ② 각주구검(刻舟求劍)
- ③ 견위치명(見危致命) ④ 호가호위(狐假虎威)
- ⑤ 수주대토(守株待兔)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꿈쩍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뭍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끈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설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니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쥘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쥘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A]“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중략>

(나)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메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B]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개금고등학교 (부산)

6. 위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백화를 걱정하는 영달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백화를 통해 옥자를 떠올리며 백화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 ③ ㉢: 자신을 부축한 영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 ④ ㉣: 영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 ⑤ ㉣: 영달이 정착해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오산고등학교 (서울)

7.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냉소적 어투로 사회적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② 소외된 하층민들의 애환과 연대 의식을 다루고 있다.
- ③ 작품 속 관찰자가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설명한다.
- ④ 시적인 문체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으로 극적인 긴장감이 조성된다.

개금고등학교 (부산)

8. 뒷글의 [A]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고자 한다.
- ②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 ③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아 상대방의 오해를 풀고자 한다.
- ④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유대감을 표현한다.
- 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한다.

개금고등학교 (부산)

9. <보기>를 읽고 뒷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삼포 가는 길>은 소설 속 인물이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공간 이동이 작품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여로형 소설에 속한다. 출발점으로부터 도착점에 이르는 인물의 여로가 텍스트의 사건 중심이자 중심 플롯을 이루며, 작품의 주제 전달에도 핵심적으로 기능한다. <삼포 가는 길>의 중심 사건은 길 위의 인물들의 우연한 만남이다. 교통 수단 없이 도보로 눈이 내린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본다면, 같은 서사 전체를 채우고 있는 주요 공간이다.

- ① 작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배경인 눈은 세 인물의 외적 갈등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 ②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세 인물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사건을 유발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해.
- ③ 출발점에서 세 인물이 동시에 만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어.
- ④ 소설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길 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어.
- ⑤ 영달, 정씨, 백화라는 세 인물이 눈이 내린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감, 유대감, 연대의식을 느끼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어.

개금고등학교 (부산)

10. 위 글의 [B]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1. (나)에 나타난 노인과 정 씨의 대화를 통해 정 씨가 새롭게 알게된 사실을 근거로 인용할 것
2. 노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정씨의 심리적 변화를 서술할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분석 정리

제작 소개

- 1996년 문화방송 창사 특집 4부작으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드라마
- 작가가 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를 여의고 사모곡처럼 쓴 작품임.
- 바쁘다는 이유로, 또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때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낸 가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함.

핵심 정리

갈래	드라마 대본
성격	애상적, 신파적
주제	영원한 이별을 맞는 가족의 슬픔과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을 앞둔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들의 심정이 잘 드러남. • 이별의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기법과 장치를 활용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등장인물

인희	50대 가정주부
정철	인희의 남편. 의사
연수	인희와 정철의 딸. 직장인
정수	인희와 정철의 아들. 재수생
할머니	인희의 시어머니. 중증 치매 환자

인희와 시어머니의 이별

-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 자신이 죽으면 돌봐 줄 사람이 없음.
-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 지난 세월을 자신과 함께해 줌.

▶
잠깐 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인사

▶
시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이별

인희와 아들 정수의 이별

- 정수를 위로하고 말을 건넨.
- 자신이 정수의 엄마였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함.

▶
미래의 아내에게 주라며 아들에게 건넨 반지 →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
아들과의 아름다운 이별

인희와 딸 연수의 이별

- 연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함.
- '너는 나고 나는 너'라며 자기 대신 엄마의 자리를 살피 달라는 부탁을 함.

▶
딸에게 전한 사랑과 뒷일에 대한 부탁

▶
딸과의 아름다운 이별

인희와 남편 정철의 이별

- 인희를 위해 정철이 저녁을 차림.
- 정철이 아픈 인희를 씻겨 줌.
- 인희는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부탁함.
- 인희는 정철이 언제 자신을 보고 싶어 할지 궁금하게 여김.

부부로서 나누는 평범한 일상과 이별에 대한 준비

남편과의 아름다운 이별

제목에 담긴 작가의 생각

서로 소원하던 가족이 엄마와 이별하게 되면서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됨.

이별이 이별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강조함.

● 할머니(시어머니)와의 이별 ①

●인희의 상황

- 암으로 죽음을 앞둠.
-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음.

자신이 죽은 이후 가족을 걱정함.

할머니에 대한 걱정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자신이 죽은 뒤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지난 세월을 자신과 항상 함께해 주어서

인희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할머니에게 전하며 이별을 준비함.

● 할머니(시어머니)와의 이별 ②

●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하는 인희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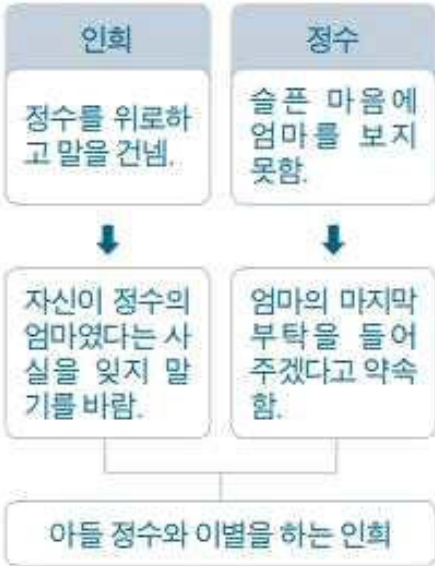
- 자신이 죽으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피지 못할까 걱정함.
- 할머니, 남편, 아들, 딸 모두 고생함.

"정신 드실 때 허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차라리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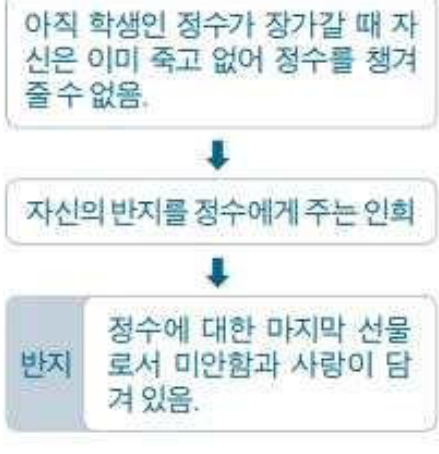
인희	할머니
할머니를 걱정하고 미안해함.	정신이 잠깐 돌아옴.
↓	↓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함.	인희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눔.

치매인 할머니와 이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됨.

●정수와와의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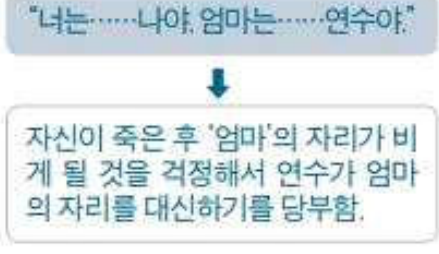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하는 인희 ②



●연수와와의 이별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하는 인희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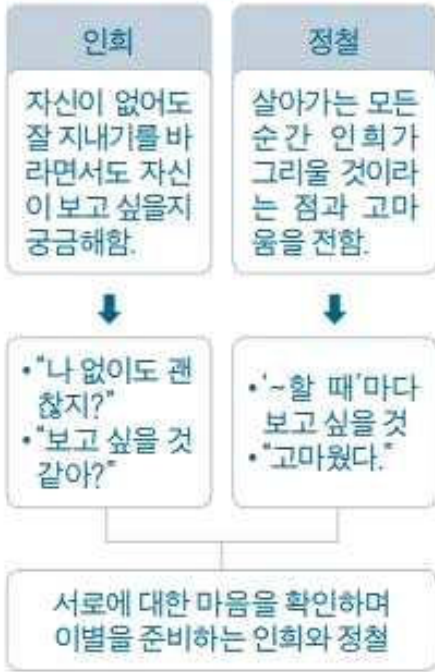
●정철과의 이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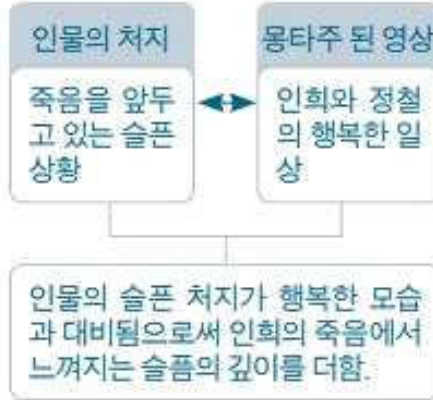
●자신이 죽은 후를 걱정하는 인희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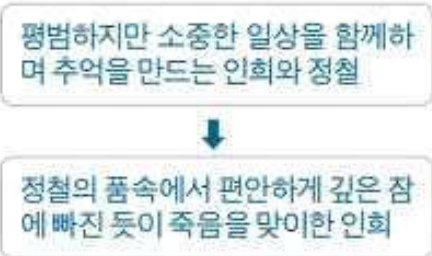
●정철과의 이별 ②



●몽타주 기법을 통한 슬픔의 심화



●정철과의 이별 ③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이별 장면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 보자.

서로 각자의 일로 바쁘게 사는 동안 가족에 헌신하며 일상을 떠받쳐 주었던 엄마 인희가 말기 암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 가족과 마지막이 될 이별을 하고 있다.

2. 제목을 고려했을 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슬픔과 아쉬움의 감정을 동반하는 이별이라는 행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이 작품 속의 이별이 이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작가는 한 가족이 겪는 영원한 이별의 과정을 통해 가족을 잃는 슬픔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의 대사와 행동으로 알 수 있는 인희의 성격을 말해 보자.

- 할마시 뭐 하나 잠깐 들여다보고 나갈 테니 먼저 나가요. 애들 기다리겠네.
-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여 주고) 이거, 네 마누라 줘.
- 아무리 뒤져 봐도 엄마가 이거밖에 줄 게 없다. 미안해.

죽음을 앞둔 처지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할 정도로 끝없는 헌신과 사랑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4. 이 작품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들을 이야기해 보자.

- 인희가 자녀들과 이별하는 공간을 좁은 차 안으로 설정해서 등장인물들에게 더욱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
- 몽타주 기법으로 행복한 모습들을 연달아 보여 주어 죽음을 앞둔 인물의 처지와 대비함으로써 이어지는 결말 장면의 슬픔을 배가하는 것 같아.
-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도록 조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인희가 가족들과 평온하고 아름답게 이별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

5. <보기>는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소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S# 70'을 비교하며 소설과 구별되는 극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보기>

정철은 곧 차를 훔쳐 거실로 가져왔다.
“무슨 차야? 향이 좋네.”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훌훌 불어서 마셔. 뜨거워.”
“꼭 신혼여행 온 것 같다. 당신 공부한다고 우리 신방도 못 차리고 산 거 알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긋 미소 짓는 인희를 정철은 처연하게 본다. 이름 모를 차 한 잔에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여자에게 그동안 왜 그렇게 못 해 줬던가.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십 분만이라도 저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마음이 헛헛하지는 않았을 것을.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1) <보기>에서 정철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을 표시해 보자.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긋 미소 짓는 인희를 정철은 처연하게 본다. 이름 모를 차 한 잔에도 저렇게 행복해하는 여자에게 그동안 왜 그렇게 못 해 줬던가.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 한 달에 십 분만이라도 저렇게 아내를 기쁘게 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마음이 헛헛하지 않았을 것을.

(2) <보기>와 'S# 70'에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의 차이를 적어 보자.

- <보기>: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말해 주고 있다.
- S# 70: 인물의 대사와 행동, 표정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엄마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읽기 소원

1. 인희의 반지를 받은 정수의 마음이 어떠할지 말해 보자.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에게 반지를 건네는 엄마의 모습에 그동안 엄마에게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2. 인희가 소원을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자.

자신이 죽은 후 화장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궁암 말 선고를 받게 되고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된다.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대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을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을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명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집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중략)

S# 74. 몽타주

1.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인희와 정철.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인희.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인희와 정철.
4. 거실 소파에서 인희,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인희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는다.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 물기 가득한 눈으로 인희를 안고 있다.

정철: (인희의 죽음을 느낀다. 인희를 보지 않고) 여보.

인희: …….

정철: 여보…….

인희: …….

정철: 인희야.

그러나 인희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운다.

눈물 뚝 떨어져 인희의 뺨 위로 흐른다.

인희,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다.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지면서, 엔딩.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분당중앙고 (경기)

1.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희의 대사 중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나타나.
- ② 인희의 갑작스런 유언에 정철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
- ③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보다 남겨질 가족을 걱정한는구나.
- ④ 제목은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원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 ⑤ #74에서 행복한 인희의 모습을 연달아 보여준 건 이어지는 결말 장면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함일거야.

분당중앙고 (경기)

2. S#76의 인희와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유사한 시를 고르면?

- ① 꺾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꺾데기는 가라.

-신동엽, <꺾데기는 가라>

- ②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

- ④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 아버지의 침상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⑤ 너는 어디로 갔느냐 /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 다만 여겨는 열매가 떨어지면 특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박목월, <하관>

분당중학교 (경기)

3. <보기>는 윗글을 원작으로 하는 소설의 일부이다. 윗글과 <보기>의 인물 심리 제시 방법의 차이점을 갈래 상의 특징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보기>

그녀는 문득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연애할 때나 했을 법한 언제 보고 싶을 것 같냐는 유치한 질문이 그에게 던져졌다.

그는 가슴 속에 울컥 슬픔이 솟구쳤다. 그녀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어린애처럼 울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그녀를, 그녀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에 그는 울음 대신 마음속에 빗장처럼 걸려 있던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냈다.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명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 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집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도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할 만큼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4.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무덤은 주검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나, 차츰 죽은 이를 기리는 기념물의 성격으로 바뀌면서 무덤 양식들이 다양화되어 무덤 양식은 생활상이나 믿음·습속을 이해할 수 있다. 묘제에는 크게 보아 토장·수장·화장·풍장 등 몇 가지의 기본형식이 있다. 토장은 땅속에 파묻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역적·시간적으로 보아 가장 널리 보편화된 형식이며, 물 속에 넣는 것을 수장, 주검을 불에 태우는 것을 화장, 그리고 땅 위에 주검을 드러나게 하여 썩히거나 짐승에게 먹히도록 하는 것을 풍장이라고 한다.

- ① 화장을 거부하여 보편화된 묘제 형식의 실용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 ② 죽음을 앞두고 묘제 형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 ③ ‘우리 엄마’를 화장했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고자 한다.
- ④ 무덤이 갖는 기념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우리 엄마’와 ‘나’의 생활상이 달라진 데 따른 무덤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5. S# 74.의 장면들은 시간 몽타주 기법과 공간 몽타주 기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적고, 해당 몽타주 기법에 대해 예시의 형식에 따라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예시) 이 장면들은 **몽타주 기법에 해당한다. **몽타주 기법은 ()하는 기법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 ②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시·공간적 제약이 비교적 적다.
- ④ 제작 시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 ⑤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직접적으로 교류한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② 극의 흐름이 반전됨으로써 인물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 ③ 대사보다 인물의 행동과 상황 묘사 위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지 못한 폭포” 글쓰기 명칭

제재 소개

- 원제목은 「늪암심폭기(凜巖尋瀑記)」로, 김창협이 늪암 계곡의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한 경험을 살려 쓴 수필
- 폭포를 보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내려온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얻은 아쉬움, 깨달음을 드러냄.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성격	경험적, 성찰적
주제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안타까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씀. •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상 및 깨달음을 함께 밝힘.

공간의 이동에 따른 글쓰이의 경험

- 노인이 폭포로 가는 길을 일러 줌.
- 골짜기 안 너럭바위에서 단풍 든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함.
- 폭포로 가는 길을 계속 찾지 못하고 헤맸.
- 자익에게서 폭포가 보잘 것 없다는 말을 들음.
- 가지 않고 돌아와 황 씨에게 속은 것을 유감스러워함.
- 산에서 내려와 노인을 다시 만나 진짜 폭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함.

가짜 폭포와 진짜 폭포

가짜 폭포	진짜 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익이 본 폭포 • 볼 만한 것이 없는 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지 못한 폭포 •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봤을 폭포

글쓰이의 경험과 깨달음

경험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던 길을 의심함. • 자익의 말만 듣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옴. • 자신이 가려던 길에 진짜 폭포가 있음을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길을 더 나가지 않고 멈추어 폭포를 보지 못한 점이 안타까움. • 진짜 기이한 폭포가 있으므로 뒷날에 유람할 거리가 생겨 기쁨.

[참고] 교수 김태만?

- 글쓴이 자신이 직접 어떤 사실이나 경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갈래
- 가사(歌辭),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등이 이에 속함.
- 형식적 제약이 적고, 화자나 서술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글쓰이의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폭포를 찾아간 경험과 깨달음

경험

- 자신이 가던 길을 의심하고 끝까지 가지 않음.
- 자익의 말만 듣고 길을 멈추고 돌아옴.
- 자신이 가려던 길에 진짜 폭포가 있었음.

●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

항 씨에게 기이한 폭포 이야기를 들은 자익과 함께 폭포를 찾아가기로 함.

깨달음

- 좀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
- 진짜 기이한 폭포는 존재하므로 뒷날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되어 여론이 있음.

폭포를 찾아가는 도중 골짜기 안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함.

길을 헤매다가 쉬면서 바라본 그 옥한 풍경에 마음이 즐거움.

● 두 개의 폭포

자익이 본 폭포

- 약한 물줄기
- 길을 잘못 들어 보게 된 폭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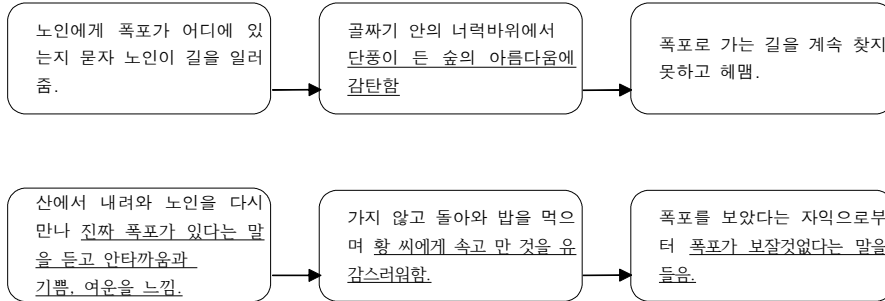
보지 못한 폭포

- 기이한 모습
-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보았을 폭포

“모지 못한 폭포” 그래픽 문법

1. 이 작품의 글쓰기가 경험한 일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 보자.

출발



2. 마지막 부분에서 글쓰기가 안타까움과 기쁨을 느낀 까닭과 깨달은 바를 파악해 보자.

글쓰기는 자신이 갔던 길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여 진짜 폭포를 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폭포의 실상이 보잘것없지 않음을 알게 되어 기쁨을 느꼈다. 또한 기이한 폭포를 당장 보지는 못했지만, 남겨 두어 뒷날에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3.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하며 교술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보기>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떼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달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度)’과 ‘족(足)’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에서

(1) <보기>에 나타난 글쓰이의 경험과 정서 및 깨달음을 정리해 보자.

경험	정서 및 깨달음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면서 주춧돌부터 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차치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림.	자신도 차치리처럼 주객이 뒤바뀐 사고를 한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음.

(2)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두 작품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술 갈래의 특성을 이야기해 보자.

- 글쓰기가 실제로 겪은 일이나 어떤 사건을 서술하고 그에 대해 느낀 바를 전달한다.

-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워 글쓴이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모지 못한 폭포**” **말만 번드레**

1. 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출발하게 된 계기를 말해 보자.

아우 자익이 마을 주민 황 씨로부터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하자 폭포를 보러 함께 출발한 것이다.

2. 자익이 황 씨가 말만 번드레한 인사라고 생각한 까닭을 파악해 보자.

황 씨가 보잘것없는 폭포를 기이하다고 말하여 일행이 괜한 발품을 팔았다고 생각해서 그를 말만 번드레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풍패동(風珮洞)의 동쪽은 바로 늪암곡(漉巖谷)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掃月石) 아래에 이르러 대천(大川)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黃氏)가 ㉡아우 자익(子益)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 주기에 마침내 혼연히 함께 갔다. 아우 대유(大有)와 조가 인상(寅祥)과 악상(嶽祥)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발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희어 칠팔십 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일 리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쳐서 앉을 만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 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오륙 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내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멧부리는 빙 둘러서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날은 이미 누엿해졌지만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 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으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불만한 게 없다고 했다.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합니다.”

황 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 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뻐고, 잠시 남겨 두어 뒷날의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유람한 날은 신미년(1691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김창협, <보지 못한 폭포>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1. 이 글에 나타나는 교술갈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알게 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형식이 자유로워 특별한 전개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특정한 사물을 관찰한 후 이와 관련된 감상을 적고 있다.
- ④ 글쓴이가 경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주관적 성찰이 나타난다.
- 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편적 이치를 깨닫고 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2. 이 글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골짜기 어귀 인가에서 노인을 만나 폭포 가는 길을 알게 되었다.
- ② 골짜기 안에서 소나무와 단풍 숲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였다.
- ③ 깊은 골짜기의 그윽한 풍경에 취해서 폭포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 ④ 폭포가 보잘것없다는 아우 자익의 말을 믿고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 ⑤ 노인이 일러 준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아서 유람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3. 이 글에서 인물들의 말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에게 ㉢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 주었다.
- ② ㉡은 처음에 ㉠이 한 말을 믿고 ㉢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 ③ ㉢은 ㉠이 ㉡에게 한 말을 믿고 ㉢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 ④ ㉢은 ㉢의 일행이 ㉢을 보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
- ⑤ ㉠은 ㉢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

4.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일이든지 남의 말을 믿고 시도할 경우는 실패하기 쉬운 법이야.
- ②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
- ③ 한 번 시작한 일은 힘든 과정이 있어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
- ④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좋아.
- ⑤ 평범한 경험에 대해서도 같이 성찰하면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검단고등학교 (인천)

5. <보기>는 위 글을 읽고 학생들이 대화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글쓴이가 조금만 더 산동성이를 올라갔다면 폭포를 발견할 수 있었을텐데...그 점이 안타까웠어. 나도 공부를 할 때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많아서 더 와 닿았던 것 같아.

B: 맞아.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C: 나중에 유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인 깨달음을 얻는 글쓴이의 태도에 감탄했어.

D: 난 황씨처럼 번드레한 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황씨의 말만 믿고 여러 사람이 고생했잖아.

E: 남의 말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익의 태도에서 나도 친구의 말을 함부로 판단한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검단고등학교 (인천)

6.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감이 느껴지도록 풍경을 묘사해야겠군.
- ② 경험한 내용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묘사해야겠군.
- ③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도록 해야겠군.
- ④ 경험한 내용과 깨달음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술해야겠군.
- ⑤ 인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아야겠군.

구산고등학교 (경남)

7.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출발하게 된 계기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2) 밑줄 친 ㉠와 같이 자익이 생각한 까닭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신도림고등학교 (서울)

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의 동기와 풍경 묘사가 드러나 있다.
- ②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연의 섭리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 있다.
- ④ 글쓴이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⑤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적 주제가 있다.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① 2.⑤ 3.② 4.(1):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 (2):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5. ④ 6.④ 7.③ 8.② 9.⑤ 10.③ 11.② 12.⑤ 13.② 14.① 15.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 16.③ 17.② 18.⑤ 19.⑤ 20.④ 21.① 22.④ 23.③ 24.② 25. ③ 26.⑤ 27.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무엇이다.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28.③ 29.② 30.① 31.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는 것을 통해 얻음 32.대학 입학 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 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 33.③ 34.① 35.⑤ 36.③ 37.②

1-(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1.② 2.⑤ 3.② 4.(1): 동일함 (2): 인물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됨 5.⑤ 6.④ 7.② 8.② 9.⑤ 10.⑤ 11.④ 12.④ 13.② 14.④ 15.③ 16.① 17.② 18. ① 19.현아가 친구를 통해 시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나'에게 현아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상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오직 현아 를 위해 쓴 시이기에 '나'도 시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0.④ 21.③ 22.⑤ 23.③ 24.① 25.③ 26. (가): 관념적, 추상적 (나): 감정적 27.① 28.④ 29.⑤ 30.설렘에서 불안으로 변화. 현아와 친구가 놀다 집 으로 같이 들어갔을까 염려하기 때문.

2-(1) 비

1.③ 2.④ 3.② 4.③ 5.① 6.④ 7.1) 빗방울이 점차 세 차게 떨어지는 모습 2) 빗방울 튀기며 바쁘게 걸어가 는 산새의 모습 8.④ 9.② 10.① 11.② 12.산새의 걸 음걸이를 사용하여 빗방울을 시각화한 것으로 활유 법이 사용되었으며 빗방울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줌. 13.④ 14.① 15.① 16.④ 17.② 18.④ 19.① 20.⑤ 21.㉠산새의 꼬리 ㉢비유 22.⑤ 23.⑤ 24.③ 25.② 26.② 27.④ 28.시각적 이미지 사용 29.④ 30.⑤ 31. ⑤ 32.⑤ 33.① 34.④ 35.④ 36.④ 37.④ 38.의인법 39.물살 40.⑤ 41.③ 42.① 43.청각적, 시각적 44.활유 법, 무생물인 비를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 45.③ 46. ① 47.⑤ 48.② 49.③ 50.④ 51.④

2-(2) 삼포 가는 길

1.⑤ 2.③ 3.③ 4.④ 5.① 6.② 7.② 8.④ 9.⑤ 10.고향 이 도시화 및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 상실감에 따른 쓸쓸함 혹은 소외감을 느낌 11.① 12.② 13.⑤ 14.③ 15.④ 16.③ 17.⑤ 18.④ 19.① 20.③ 21.③ 22.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23.① 24.② 25.④ 26.① 27.⑤ 28.⑤ 29.③ 30.⑤ 31.⑤ 32. ② 33.③ 34.② 35.뜨내기 신세 36.④ 37.⑤ 38.② 39. ④ 40.⑤ 41.1인칭 내부 시점에서 3인칭 외부 시점으 로 변화함. 42.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껴 진정한 자신 의 모습을 보여줌. 43.⑤ 44.③ 45.① 46.① 47.②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① 2.② 3.윗글은 시나리오로 인물의 심리가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반면, <보기>는 소설로 인물 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 4.③ 5.이 장면들은 공간 몽타주 기법에 해당한다. 공간 몽타주 기법은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 붙여서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6.⑤ 7.④ 8.① 9. ⑤ 10.④ 11.① 12.③ 13.④ 14.⑤ 15.⑤ 16.④ 17.④ 18.⑤ 19.① 20.㉠: 몽타주 ㉢: 대조 21.② 22.① 23.④ 24.③ 25.④ 26.③ 27.③ 28.⑤ 29.③ 30.⑤ 31.① 32. ④ 33.① 34.③ 35.② 36.④ 37.① 38.⑤ 39.① 40.③ 41.② 42.① 43.③

2-(4) 보지 못한 폭포

1.④ 2.③ 3.⑤ 4.① 5.④ 6.⑤ 7.1) 골짜기 안에 기이 한 폭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2) 황 씨에게 속 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했기 때문에 8.③ 9.① 10.③ 11.⑤ 12.㉠ 객 ㉡ 주 13.② 14.⑤ 15.③ 16.① 17.④ 18.① 19.④ 20.④ 21.⑤ 22.④ 23.① 24.② 25.③ 26. ③ 27.④ 28.발은 실제적 본질을, 탁은 관념을 나타냄 /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 음 29.④ 30.③ 31.③ 32.③

3-(1)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포], 선릉역[설 령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몰], 늦게[늦께], 도착했 다[도차캔따] 8. ⑤ 9.① 10.④ 11.② 12.㉠ [달근] ㉡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②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 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14.①

▶[A]와 ①은 유추임.

② 비유법 ③ 역설법 ④ 의인법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유추 (★)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식
예) 전제 : 길동이는 친절해서 인기가 많다. 우동이도 친절하다. → 결론 : 우동이도 인기가 많을 것이다.

2.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3.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16.③

▶주눅: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

17.②

▶윗글의 필자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제시한 것이므로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②가 가장 적절함.

▶옳다, 1등급 조언◀

발문(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에 '가장(!) 적절한 것'이 있다면, 선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보자. 정답 같은 선지가 있고 더 정답 같은 선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더 정답 같은 선지를 고르고 덜 정답 같은 선지는 과감히 버려라!

18.⑤

ㄱ: 통계자료는 없음. ㄴ: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넣어둬, 패턴 공략◀

전문가의 견해 인용→신뢰성 ↑

19.⑤

▶하이드 해멀이 여행 중에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간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음.

① 인생의 꿈을 실현할 때 목표의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

느냐가 중요하다. ② 생각이 집이 건축되면서 지적 탐구 능력과 호기심이 사라짐. ③ 미래가 아닌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아도 목표가 분명하면 상관 없는 것임. ④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김.

20.④

① ㉠: 문장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않는 것이다'가 맞음.

② ㉡: 앞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여 '그런데'으로 고친다.

③ ㉢: 이중피동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건넌'으로 고친다.

⑤ ㉤: 글의 흐름에 맞음.

21.①

▶개념 차이는 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줄줄줄)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2.④

① ㉠: 목표가 없거나 진정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한 청소년의 대답이다.

② ㉡: 고정관념을 갖거나 사고의 틀이 고정되는 것을 말함.

③ ㉢: 진정한 삶이 일어나는 방법과 과정을 말함.

⑤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을 말함.